

특특뉴스

삼성전자 '비스포크 디자인' 투표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BESPOKE)' 디자인 공모전의 온라인 공개투표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00점 이상이 출품됐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기획성, 예술성, 창의성, 상품성 등을 기준으로 총 70점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삼성전자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 이후 25일 '파이널리스트'(입상권 후보) 10점이 공개되고, 이들 가운데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과하는 3점이 최종 수상 명단에 오르게 된다.

특히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내년 4월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시되고,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그래픽 경제



한국 국가경쟁력 13위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광주·전남 7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광주, 동구 인쇄문화마을·북구 야구마을 조성
전남, 장흥 골목르네상스·함평 나비축제 포함
상생플랫폼 등 다양한 혁신거점...지원단 구성

광주·전남지역 7곳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광주시는 동구 인쇄문화마을과 북구 야구마을 등이 3곳이 선정됐으며, 전남도는 담양군 문화생태로와 함평군 나비 국제축제 등 4곳이 포함됐다.

광주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중심시가지형 '동구 인쇄문화마을 조성사업', 일반권형 '광산구 월곡2동 고려인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북구 임동 야구마을' 사업 등이

다. 동구 인쇄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753억원을 투자되는 중앙공모사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인쇄거리 상권 회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광산구 월곡2동 고려인마을은 총사업비 283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이주민과 원주민이 더불어 상생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북구 임동 버드리 야구마을은 지난해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해 탈락한 후 올해 재공모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해 안전마을을 위한 방법시설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등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탈지역화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곳은 담양군 '문화생태로 천년을 디자인하다', 장흥군 '칠거리 골목르네상스', 무안군 '꿈틀꿈틀 생동하는 행복무안', 함평군 '함평천지, 한우·나비·국화축제와 만남' 등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다양한 혁신거점들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담당하는 도시재생 뉴딜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의 지원을 통해 지역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



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업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앞으로 신속하게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 지역을 감영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

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모두 143곳이 신청해 이날 76곳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총 5조9,00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이

들 지역을 회생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하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되살리거나(경제기반형), 주차장을 비롯한 생활SOC를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일반권형), 기반 사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맞은 지역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원도심 상권을 재생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서미애 기자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세요”

광주국세청, 일반과세자 세액 납부 당부

광주국세청(청장 박석현)은 법인사업자 9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17만7,000명도 오는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

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과,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 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또한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기 위해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한다. 여기에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14일부터 운영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은 이밖에 태풍 등 재해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격 한 매출 감소, 일반 수출규제에 따른 피

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바깥에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검증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미애 기자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색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